CONDERI

MARKET & INDUSTRY INSIGHT | 대외 공개판

수출은 111.9% 늘었고, 코스피는 7.9% 빠졌다

Exports Up 111.9 Percent, the KOSPI Down 7.9 — When the Real Economy and the Price Diverge

이 리포트가 다루는 것

11월 20일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5,000선을 내줬고, 주간 낙폭은 7.9%였습니다. 시가총액은 3,991조원으로 10개월 만에 4,000조원 아래로 내려갔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10거래일 만에 함께 발동했습니다. 바로 그 주에 관세청은 11월 1~10일 수출이 334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초순 실적이고, 그 절반(49.7%)은 반도체입니다. 실물은 최고치를 쓰는데 자본의 가격은 무너진 한 주. 이 리포트는 수출·증시·금리·환율· 반도체·창업자금·교육재정·청년고용 여덟 개의 숫자를 하나의 구조로 읽습니다.

334.6억$
11월 1~10일 수출
전년 대비 +111.9%

49.7%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년 전 24.4%

4,869.96
코스피 종가
−267.93p(−5.21%)

3,991조
코스피 시가총액
10개월 만에 4,000조 붕괴

I~II 수출·시장
열흘에 335억 달러, 그리고 5.21%

III~V 글로벌·금리
S&P 조정장, 26일 금통위

VI~VII 산업·자금
엔비디아 46% 하락, 로봇 데이터 630억

VIII~IX 교육·고용
특교 3년 연장, 청년 48개월

Executive Summary / 요약

Record exports, a ten-month low in the index, one structure

334.6억 달러
11월 1~10일 수출 (+111.9%)

4,869.96
코스피 종가 (−5.21%)

49.7%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336.2원
원·달러 종가 (+6.2원)

오늘의 결론 — 실물은 사상 최고, 가격은 10개월 최저

11월 20일 코스피는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마감했습니다. 1월 16일(4,840.74)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 종가이고, 사흘 만에 5,000선을 내준 자리입니다. 주간으로는 7.9% 빠졌고, 시가총액은 3,991조3,977억원으로 1월 15일 이후 처음 4,000조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주 관세청은 11월 1~10일 수출이 334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1.9%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초순 기준 역대 최대이고, 조업일수를 맞춘 일평균 수출도 44억6,000만 달러로 97.7% 늘었습니다. 실물 지표는 최고치를 쓰는데 자본시장은 10개월 최저로 갔습니다. 두 방향이 갈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출의 절반(49.7%)이 반도체이고, 그 반도체의 가격을 정하던 회사(엔비디아)의 주가가 7주 연속 46% 빠졌습니다.

① 수출 — 열흘에 335억 달러

수출 334.6억 달러(+111.9%), 수입 247.1억 달러(+45.0%), 무역수지 87.5억 달러 흑자. 반도체는 166.3억 달러로 331.2% 늘며 비중이 24.4%에서 49.7%로 뛰었습니다. 연간 누계는 9,636.6억 달러로 1조 달러까지 363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② 시장 — 하루에 5.21%, 한 주에 7.9%

코스피 4,869.96(−5.21%), 코스닥 645.68(−5.71%). 외국인 1조1,420억원 순매도로 6거래일 연속 매도, 누적 5조965억원. 개인은 1조5,955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받치지 못했습니다. 양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10거래일 만에 동시 발동했습니다.

③ 원인 — 칩이 아니라 신뢰

엔비디아는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 사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조사 보도로 금요일 14% 빠졌습니다. 7주 연속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이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 2조6,0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AI 자본지출의 신용 자체가 재평가되는 국면입니다.

반도체 49.7%가 만드는 두 가지

첫째, 기록의 크기. 반도체를 뺀 수출은 168.3억 달러로 증가율이 41.0%까지 낮아집니다(일평균 기준 31.6%). 둘째, 변동성의 크기. 메모리 단가가 꺾이면 전체 수출 숫자가 함께 꺾입니다. D램·낸드 가격 상승세 둔화 조짐이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확인 지점 다섯

① 11월 26일 한은 금통위(3.25% 인상 여부) ② 12월 연준 회의(0.25%p 인상 확률 96.4% 반영) ③ 11월 1~20일 수출입 잠정치 ④ 엔비디아 SEC 조사 진행과 신임 경영진의 가이던스 ⑤ 12월 1일 11월 월간 수출입 동향. 다섯 지점이 이 리포트의 가설을 검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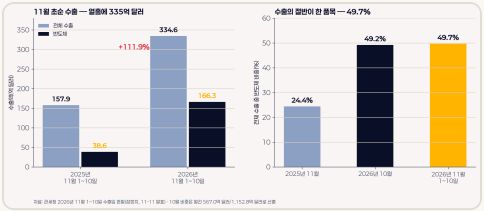
이 리포트의 방법 — 여덟 개의 숫자를 하나의 구조로 읽는 방식

수출 통계는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 11월 11일 발표), 국내 시장 수치는 한국거래소 정규장 종가와 연합뉴스 마감시황, 미국 지수는 11월 19일·20일(현지) 종가와 로이터·CNBC 보도, 금리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10월 22일)과 3분기 GDP 속보, 물가는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 창업자금은 더브이씨·더벨·지디넷코리아, 교육재정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속기록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전망치는 인용한 기관의 이름을 함께 적었고, 추정과 확정을 구분했습니다.

한 줄 수출은 열흘에 111.9% 늘었고, 같은 주 코스피는 7.9% 빠졌다 — 실물과 가격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

I. 수출 — 열흘에 335억 달러, 11월 초순 사상 최대

Ten days, USD 33.46 billion, and half of it is memory



자료: 관세청 2026년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

조업일수가 0.5일 늘었는데 수출은 두 배가 됐다

11월 1~10일 수출은 334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57억9,000만 달러)보다 111.9% 늘었습니다. 조업일수는 7.0일에서 7.5일로 0.5일 늘었을 뿐인데, 일평균 수출은 22억6,000만 달러에서 44억6,000만 달러로 97.7% 증가했습니다. 달력 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증가입니다. 수입은 247억1,000만 달러로 45.0% 늘었고, 무역수지는 8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연초 이후 누계 수출은 9,63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0% 많습니다.

품목	11월 1~10일	전년 대비	비중	해석
반도체	166.3억 달러	+331.2%	49.7%	증가분 176.7억 달러의 약 72%를 한 품목이 만들었다
석유제품	20.1억 달러	+100.7%	6.0%	물량보다 단가가 끌었다
승용차	14.7억 달러	−4.3%	4.4%	주요 10개 품목 중 유일한 감소
철강제품	12.0억 달러	+38.8%	3.6%	전방 산업 수요 회복
선박·컴퓨터	21.2억 달러	+63.9%·+237.7%	6.3%	선박 인도 일정과 저장장치 수요가 겹쳤다

국가별 — 중국·미국·베트남이 57.3%

중국 91.6억 달러(+148.0%), 미국 68.0억 달러(+163.6%), 베트남 32.0억 달러(+113.3%)입니다. 대만이 20.8억 달러로 182.5% 늘었고, 말레이시아는 9.8억 달러로 340.9% 증가해 주요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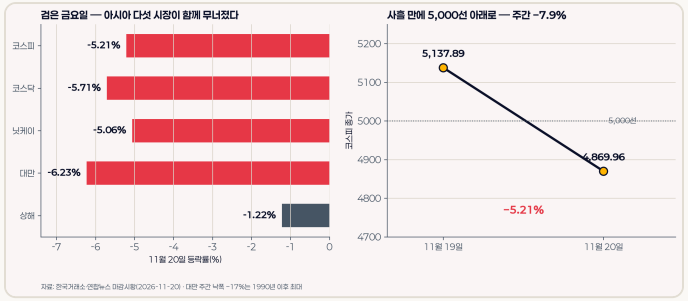
비용 — 에너지 수입이 86.3% 늘었다

수입 247.1억 달러 가운데 에너지(원유·가스·석탄)가 86.3% 늘었습니다. 원유 32.5억 달러(+75.8%), 가스 14.0억 달러(+192.1%)입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11.5억 달러로 36.4% 늘어 설비투자의 선행 지표도 함께 올랐습니다.

관찰 **반도체를 빼면 수출은 168.3억 달러, 증가율은 41.0%다 — 기록의 크기는 한 품목이 만들었다**

II. 국내 증시 — 검은 금요일, 사흘 만에 5,000선 아래로

KOSPI 4,869.96 (−5.21%) · KOSDAQ 645.68 (−5.71%)



자료: 한국거래소·연합뉴스 마감시황(2026-11-20)

하루의 경로 — 개장부터 저가권 마감

코스피는 4,928.51(−4.08%)에 출발해 장중 4,971.31까지 낙폭을 줄였지만 오후 들어 4,831.69(−5.96%)까지 밀렸고, 4,869.96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하락 종목은 809개, 상승은 88개였습니다.

사이드카 — 10거래일 만의 동시 발동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54분 유가증권시장, 오후 1시 28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각각 5분간 정지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발동된 것은 11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 9일 만에 되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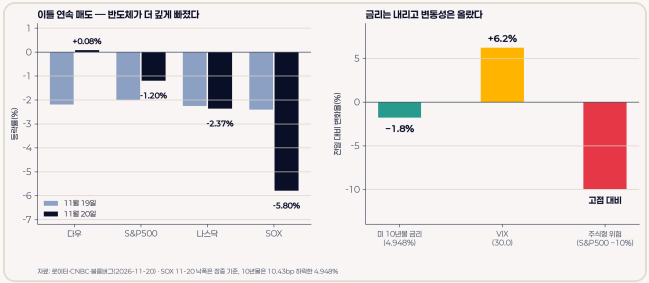
코스닥은 39.13포인트(5.71%) 내린 645.68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3.32% 급등분을 모두 반납하고 650선을 내줬습니다. 하락 종목 1,509개, 상승 194개로 중소형주 매도가 대형주보다 넓게 퍼졌습니다.

구분	금액	해석
외국인	−1조1,420억원	6거래일 연속 순매도, 누적 −5조965억원
기관	−9,510억원	연기금·금융투자 중심 매도
개인	+1조5,955억원	저가 매수로 유입, 지수 방어에는 실패
프로그램·선물	−1조1,584억원 / 외국인 +923억원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산 헤지 구조

수급 개인 1조5,955억원으로는 5.21%를 막지 못했다 — 지수를 떠받칠 주체가 없었다

III. 글로벌 — 조정장 진입과 피난처의 실종

S&P 500 −10% from peak · 10-year yield below 5%



자료: 로이터·CNBC·블룸버그(2026-11-20 마감)

조정장 진입 — S&P500은 고점 대비 10%, 나스닥은 연초 상승분 소멸

11월 20일(현지) 뉴욕증시는 업종별로 갈렸습니다. 다우는 0.08% 오른 49,135.56, S&P500은 1.20% 내린 7,089.64, 나스닥은 2.37% 내린 23,314.06으로 마감했습니다. S&P500은 고점 대비 10% 하락으로 기술적 조정장에 들어섰고, 나스닥은 2026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장중 6% 가까이 빠졌고, 지수 선물과 함께 MSCI 전세계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입니다.

채권으로 도피 — 10년물 4.948%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0.43bp 내린 4.948%로 3주 만에 처음 5% 아래로 내려왔고, 30년물은 5.3371%, 2년물은 4.653%였습니다. 12월 인상이 가격에 반영된 상태에서도 안전자산 수요가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변동성 — VIX 30, 3월 이후 최고

VIX는 장중 30을 넘어 3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변동성 지수도 4월 이후 최고입니다. 다만 국채 변동성(MOVE)과 주요 통화 내재변동성은 지난달 고점을 밑돌아, 스트레스가 아직 주식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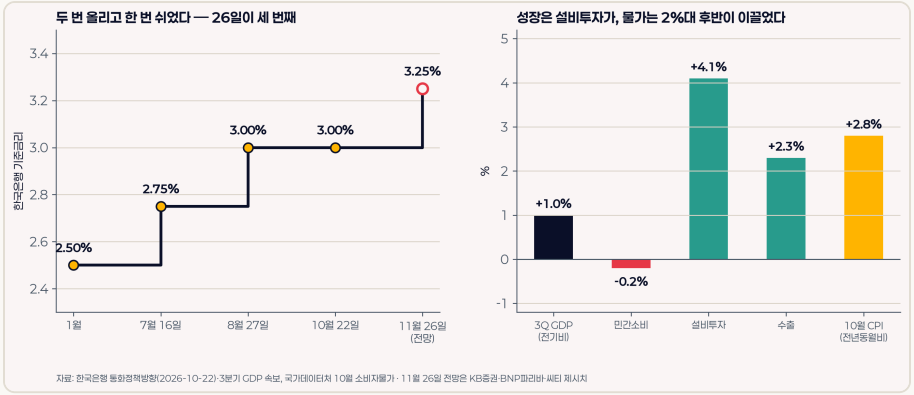
피난처가 사라졌다 — 금 −1%

금은 1% 내리며 2025년 9월 이후 최저로 밀렸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려는 매도라는 신호입니다. 달러는 4주 연속 강세를 향하고, 신흥국 주식은 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지표	수치	의미
대만 가권지수	주간 −17%	1990년 이후 최대 주간 낙폭.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진앙
MSCI 전세계	7거래일 연속 하락	2023년 9월 이후 최장
세계 주식 시가총액	8월 고점 대비 약 9조 달러 감소	로이터 집계

IV. 금리·환율 — 26일이 올해 마지막 결정이다

Bank of Korea decides on November 26 with growth up and consumption down



자료: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2026-10) · 11월 26일 전망은 KB증권·BNP파리바·씨티

26일 금통위 — 인상 근거와 동결 근거가 같은 회의에 놓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엽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로, 7월 16일 2.50%에서 2.75%로, 8월 27일 다시 3.00%로 올린 뒤 10월 22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KB증권·BNP파리바·씨티는 25bp 인상을 전망합니다. BNP파리바는 "접전이 될 것"이라며 동결 소수의견 1~2표를 예상했습니다.

인상 쪽 근거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0% 늘어 한은 전망(0.3%)을 크게 웃돌았고, 10월 소비자물가는 2.8%로 목표(2%)를 웃돌았습니다. 근원물가도 2.8%입니다. 미 연준의 12월 인상 가능성(0.25%p 96.4% 반영)은 한미 금리차 확대를 통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동결 쪽 근거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증시 급락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줄면 소비 부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D램·낸드 가격 상승세 둔화 조짐도 긴축의 필요성을 낮춥니다. BNP파리바는 최종금리를 3.25%로 보며 이후 동결을 전망합니다.

환율 — 1,336.2원

원·달러 환율은 6.2원 오른 1,336.2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1,340.3원까지 올랐다가 수출기업 달러 매도로 되밀렸습니다. 달러 강세·증시 급락·위험회피가 겹친 결과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재산정 시점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 성장 1.0%와 물가 2.8%는 올릴 근거, 소비 −0.2%와 증시 급락은 기다릴 근거다

V. 산업 — 반도체 49.7%의 대가

Nvidia down 46 percent in seven weeks, and Korea exports half memory

항목	수치	해석
엔비디아 주가	금요일 −14%, 7주 연속 하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연속 주간 하락
엔비디아 시가총액	7주간 약 2조6,000억 달러 감소	세계 4위(약 3조 달러)로 밀려남
밸류에이션	선행 PER 8.4배	AMD 29배와 비교 — 시장은 이미 실적 불확실성을 반영
규제 리스크	SEC 회계 조사·캘리포니아 소환	수출 통제 위반·투자자 기만 여부 조사
앤트로픽	97.17달러 → 85.12달러	상장 둘째 날 −11~12%, 공모가(83달러)에 근접
네오클라우드	코어위브 −6.1%, 네비우스 −9.4%	엔비디아 금융 지원 기준 강화가 직격

한국 수출의 절반이 의존하는 가격이 흔들린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방향은 메모리 단가와 미국 AI 자본지출이라는 두 변수에 걸려 있습니다. 11월 초순 반도체 수출 166.3억 달러는 전년의 네 배가 넘지만, 그 증가율의 상당 부분은 단가에서 나왔습니다. D램 가격은 최근 몇 주 하락 조짐을 보이고, 낸드플래시는 8월 말부터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금융 지원 기준 강화가 겹치면 네오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고, 그것이 메모리 주문의 시차를 만들어냅니다. 수출 통계는 3개월가량 뒤에 이 변화를 반영합니다.

집중도의 대가

반도체 비중 49.7%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9월 1~20일 47.8%가 직전 최고였습니다. 집중도가 높을수록 상승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커지고, 하강기에는 감소폭도 커집니다. 11월 초순 수출 증가분 176.7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약 72%를 만들었습니다.

삼성·SK의 다음 분기

메모리 가격 협상은 연말 계약에서 이뤄집니다. 고객사가 재고를 줄이면 1분기 출하가 먼저 조정됩니다. 확인할 지표는 12월 1일 11월 월간 수출의 반도체 단가(달러/톤)와 12월 초 D램 고정거래가입니다.

산업 수출을 만든 가격이 미국에서 먼저 무너졌다 — 49.7%는 성장의 증거이자 노출의 크기다

VI. 창업자금 — 630억원이 향한 곳은 로봇의 현장 데이터였다

Where Korean venture money went this week

기업	라운드	규모	내용
휴민랩스	시리즈A	약 630억원(4,700만 달러)	액셀·라이크하우스캔터 공동 주도. 로봇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 6개월에 연환산 매출 5,000만 달러
하이퍼엑셀	시리즈B 목표	500억원	LLM 추론 전용 AI 반도체. KAIST 연구진 창업
매니패스트	프리A	수십억원(진행 중)	알케미스트 2027 프로그램 선정(400개 지원 중 10개), 시카고대 폴스키센터 참여
에이젠코어	시리즈A 목표	100억원	심중수소 기반 소재·에너지
메디인테크·익스톨·숨빗AI	100억원 이상	3곳	11월 16~20일 주간 100억원 이상 유치. 2곳이 의료기기

자금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와 장비로 간다

이번 주 국내 벤처투자는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로봇·제조 현장의 실물 데이터, 다른 하나는 추론 반도체·소재 같은 딥테크입니다. 휴민랩스의 630억원 라운드는 사업 개시 6개월에 연환산 매출 5,000만 달러를 만들었다는 실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반면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은 매출 증명 없이는 라운드를 열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AI 관련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딥테크의 밸류에이션 기준도 "성장률"에서 "매출과 계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창업가에게 주는 세 가지

① 연환산 매출(ARR)과 총이익률을 한 장으로 제시하십시오. ② 하드웨어·데이터 자산이 있으면 자산의 검증 출처를 함께 보여주십시오. ③ 시리즈B 이상은 국내 펀드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해외 액셀러레이터·전략적투자자를 병행하십시오.

투자자에게 주는 세 가지

① AI 인프라 기업의 매출은 고객 집중도와 계약 기간을 먼저 봐야 합니다. ② 의료기기·로봇은 인허가 일정이 밸류에이션의 절반입니다. ③ 금리 3.25% 국면에서는 회수 기간 10개월(맥킨지 은행권 벤치마크)을 넘는 프로젝트의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 돈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장비로 이동했다 — 630억원이 그 증거다

VII. 에듀테크·교육재정 — 특별교부금 3년 연장이 뜻하는 것

AI education budgets extended, teachers become builders

항목	내용	시사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11월 17일) 3년 연장 의결.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3%→3.8%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	보통교부금 6,310억원 감소 추산. 교육청 4곳(울산·부산·인천·충남)이 반대 의견
교육부 교원연수	11월 21일~12월 5일 MS·구글·AWS 사옥에서 교사·교육청 담당자 240명 연수	깃허브 코파일럿·제미나이·키로로 수업용 퀴즈 생성기·학습 웹페이지 직접 제작
삼성 갤럭시 AI 클래스	갤럭시 XR 체험 과정 도입. 누적 수료 20만명 → 2개년 25만명 목표	2학기 모집 하루 만에 173개교·2.2만명 신청
경남교육청	일반고 교사 30명 대상 바이브 코딩 연수(11월 20~21일)	교육과정 편성표 점검·과목 선택 안내 앱을 교사가 직접 제작

예산은 중앙으로, 도구는 교사 손으로

이번 주 교육 정책은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중앙 집행입니다.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3년 더 연장되면서 AI·디지털 사업 예산은 교육부가 정한 항목으로 계속 흐르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구의 현장 제작입니다. 교육부와 빅테크가 교사에게 코딩 도구를 쥐여주고, 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업무용 앱을 만들게 합니다. 에듀테크 기업 입장에서 구매자는 교육청이지만, 실제 채택을 결정하는 사람은 수업에서 도구를 만져 본 교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AI·디지털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항목에 맞는 제품·실증 근거를 가진 기업만 예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예산 편성은 연장 특례를 전제로 다시 짜이므로, 상반기 안에 학교 실증 데이터와 교원 연수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에 주는 시사점

교사 1인이 앱을 만드는 시대에는 "완성된 제품"보다 "교사가 고칠 수 있는 도구"가 채택됩니다.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해에는 무료 체험과 교원 연수를 묶은 제안이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교육 특별교부금 3년 연장은 시장의 확정이고, 교사 주도 제작은 구매 기준의 변화다

Ⅷ. 고용 — 48개월째 줄어드는 청년, 늘어나는 설비

Youth employment down 48 months while capex rises

48개월
청년 취업자 연속 감소

−19.6만
10월 청년 취업자 감소

−6.2만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1~10월)

+4.1%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

반도체 호황은 임금과 고용으로 번지지 않았다

10월 고용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며 48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는 1~10월 누적 6만200명(24.3%) 줄었습니다. 반면 3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4.1% 늘었고, 수출은 2.3% 증가했습니다. BNP파리바는 "반도체와 금융업종에 임금 상승세가 집중되는 등 반도체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조 — 설비가 사람을 대체하는 성장

반도체는 매출 1조 원당 고용 인원이 제조업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수출이 늘어도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소비를 억제하고, 소비 억제는 다시 내수 기업의 채용을 줄입니다.

기회 — 미스매치가 만든 인력 풀

청년 고용 감소는 지원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AI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은 다른 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무 전환 교육과 실무 검증(포트폴리오·자격)을 제공하는 사업에 수요가 생깁니다.

기업의 판단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청년이 줄었다"를 인력난으로 읽으면 착오입니다. 직무별 지원자 수와 이직률을 함께 보십시오. 반도체 장비·소재 협력사는 여전히 구인난이고, 콘텐츠·서비스 직군은 지원자 과잉입니다.

고용 수출 111.9%와 청년 고용 48개월 감소는 같은 산업 구조의 앞면과 뒷면이다

IX. 전략 — 이번 주에 확인하고 결정할 여섯 가지

Six decisions for the week ahead

의사결정	기한	확인할 것	권고
변동금리 부채 재산정	11월 26일	한은 기준금리 3.25% 인상 여부	인상 시 이자 부담 시뮬레이션을 미리 준비
달러 결제 비용	12월 연준 회의	0.25%p 인상 확률 96.4%, 0.5%p 가능성	결제 주기를 앞당기고 환헤지 비중 점검
고객 포트폴리오	12월 1일	11월 월간 수출의 반도체 단가	메모리 의존도 50% 초과 고객은 대체 품목 발굴
수출 마진	상시	환율 1,336원, 원화 강세 전환 시점	원화 강세 시 마진 3%p 하락 가정
채용 계획	12월	직무별 지원자 수·이직률	청년 감소를 인력난으로 오독하지 말 것
교육사업 예산	2027년 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3년 연장·용도 제한	AI 교육 항목에 맞는 실증 데이터 확보

이번 주 판단의 기준 — 가격과 실물 중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시장은 가격을 먼저 조정하고 실물은 나중에 반응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실물이 꺾인 것이 아니라 실물에 붙어 있던 가격(밸류에이션)이 꺾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은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다시 붙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금과 계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 통계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써야 합니다. 두 국면을 가르는 지표는 12월 1일 월간 수출의 반도체 단가입니다.

전략 **가격이 먼저 흔들리고 실물은 뒤따른다 — 지금은 사업이 아니라 계약과 현금을 정리할 때다**

English Summary

For global readers and archive

English Summary

Korea posted USD 33.46 billion of exports in the first ten days of November, up 111.9 percent year on year and the strongest early-November reading on record. Semiconductors accounted for USD 16.63 billion, or 49.7 percent of the total, up from 24.4 percent a year earlier. On the same week the KOSPI fell 5.21 percent to 4,869.96 on November 20, its lowest close in ten months, and lost 7.9 percent for the week. Market capitalisation slipped below KRW 4,000 trillion for the first time since January. Foreigners sold KRW 1.14 trillion on the day, a sixth straight session, for a cumulative KRW 5.1 trillion, while retail investors bought KRW 1.6 trillion. Sell-side sidecars triggered in both the main and Kosdaq markets.

The global backdrop

The S&P 500 fell 1.20 percent on November 20 and closed 10 percent below its peak, entering a technical correction; the Nasdaq lost 2.37 percent and erased its 2026 gains. Nvidia dropped 14 percent, extending a seventh weekly decline, the longest since 2008, and has lost about USD 2.6 trillion of market value over the stretch. The SEC is examining its accounting, and California's attorney general has issued a subpoena. Anthropic, which raised USD 81.3 billion in the largest listing on record, fell 11 percent on its second trading day to USD 85.12. The IMF expects a little more correction in AI-linked markets.

Rates and the week ahead

The Bank of Korea meets on November 26 with the base rate at 3.00 percent; KB, BNP Paribas and Citi expect a 25 basis point hike after third-quarter GDP grew 1.0 percent and October inflation reached 2.8 percent, while private consumption fell 0.2 percent. The won closed at 1,336.2 per dollar. Korean venture funding moved toward physical data and deep tech: Human Labs raised KRW 63 billion for robot training data, and HyperAccel opened a KRW 50 billion Series B. Parliament extended the digital education special grant for three years, and the education ministry began AI training for 240 teachers with Microsoft, Google and AWS.

Summary **Exports at a record, prices at a ten-month low — the divergence is the story of the week**